광주 여름밤, 세계음악에 풍덩~

지난해 ACC에서 펼쳐진 월드뮤직페스티벌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ACC재단, 8월 25~27일 아시아문화광장서 월드뮤직 축제

장기하·안나 루아 카이아노 등 국내·외 뮤지션 30개팀 참여

자원봉사자 '월페 반디' 모집도

장기하

"저 애들을 봐 온 동네 구경이라도 난 듯 내 춤을 구경하네 날이 선 무대 위에 내 정신은 아득. 다들 무엇을 원하는지 손을 뻗은 채로 홀린 눈빛(넉살의 '작두')"

힙합씬의 강자 '넉살'부터 이름 자체로 브랜드인 '장기하'까지.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국내·외 30여 팀 아티스트들과 함께 14번째 돌을 맞이한다.

페스티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ACC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신진 아티스트부터 국내·외 최정상급 가수를 만날 수 있어 관심이 뜨겁다. 페스티벌은 일부 유료로 진행되며 티켓은 다음달 21일까지 얼리버드 구매 가능하다.(500석에 한정 3만 원(3일권).

라인업은 화려함 그 자체. 먼저 이번 축제의 대표주자 '장기하'는 수많은 히트곡으로 애호가층이 두터운 뮤지션이다. '장기하와 얼굴들(2008)'로 데뷔했으며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싸구려 커피)는 중독성 있는 가사로 유명세를 얻었다. 최근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광주 시민과의 만남에 기대를 모은다.

앞서 언급한 '넉살'은 쇼미더머니 준우승, 고등래퍼 멘토 등 화려한 경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얼굴이다. 재치 있는 입담과 수준급 래핑으로 호평받는 그의 대표곡은 '작두'다. 가사의 딜리버리가 뛰어나 힙합 팬들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도 광주를 찾을 계획이다.

슈퍼스타K4로 데뷔한 4인조 밴드 '딕펑스'는 김재흥(베이스), 김태현(보컬), 키보드(김현우), 박가람(드럼)으로 구성된 인디밴드다. 기타 없는 밴드지만 특유의 풍부한 사운드를 선사할 예정이다.

국악소리가 송소희도 관객들을 맞이한다. 'Infodemics', '구름꽃 여행', '그대라는 계절' 등의 노래를 선보이며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독보적 음악세계를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3·1절을 맞아 440만 명이 구독하는 음악 유튜브 채널 '딩고 뮤직'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한강수 타령', '밀양아리랑(雪花)' 등을 불러 눈길을 사로잡았다.

혼성 현악기 듀오 '첼로가야금'도 이목을 끈다. 첼리스트 김 솔 다니엘과 가야금 연주가 윤다영이 결성했으며, 2018년 수림뉴웨이브상, 2020년 정동극장 청춘만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한복을 입고 동서양 현악기를 조화롭게 울리는 아이코닉한 연주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에게는 낯선 비브라폰 연주가 마더바이브도 건반을 두드린다. 네 개의 고무망치로 금속막대를 두드려 공명을 일으키는 비브라폰은 흡사 마림바와 유사하다.

이번 페스티벌 라인업에는 유수의 해외 아티스트들도 대거 포진했다.

여성 보컬 등으로 구성된 타이완의 '스몰 아일랜드 빅 송'은 레게풍 스탭이 특징적인 그룹이다.

이외에도 포르투칼의 '안나 루아 카이아노', 아일랜드의 '대니 랄킨', 쿠바의 '브렌다 나바레트' 등이 참여해 풍성함을 더한다. 재즈, 힙합, 인디음악 등 하나의 장르로 관객들이 결집하는 뮤직패스티벌과 달리 이번 축제는 국가와 장르를 초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작년에 이어 축제의 자원봉사를 맡아 행사장의 반딧불이 될 '월페 반디'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음원 입력만 하면 악보 그려주는 AI

AI가 만든 악보로 연주하는 'I believe' 현악 4중주 모습. /연합뉴스

지니뮤직-주스 편곡 서비스 '지니리라' 베타 버전 선보여

좋아하는 노래 음원을 입력만 하면 AI(인공지능)가 즉석에서 악보를 따 줘서 편곡까지 가능하게 해 주는 서비스가 구현됐다.

지니뮤직은 AI 스타트업 주스와 손잡고 AI 기술을 활용한 악보 기반 편곡 서비스 '지니리라'(Genie.Re:La) 베타 버전을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지니리라는 '지니에서 리메이크 음악을 즐겁게 부르자'는 의미로 MP3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곧바로 디지털 악보를 그려 준다. 이용자는 이를 이용해 편곡까지 할 수 있다.

지니뮤직은 "지니리라는 평소 작곡·편곡에 관심 있던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AI를 이용해 낮춰줌으로써 창작의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시장분석업체 마켓닷어스에 따르면 세계 음악 생성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억2900만달러(약 2978억원)에서 10년 뒤인 2032년에는 26억6000만달러(약 3조4593억원)로 11배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니리라 베타 서비스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식 유통되는 음원만 업로드할 수 있다. 또 원작자가 2차 저작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음원의 업로드는 제한된다.

박현진 지니뮤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지니뮤직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니뮤직이 서비스하는 1900만곡 가운데 약 70%인 1300만곡에 대해서는 악보 생성 허가를 받았고, 이 허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며 "이용자가 MP3를 업로드할 때 허가 여부를 판단해 OK 사인이 나야 악보 생성으로 넘어간다. 허가 받지 않은 곡은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악보를 생성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니뮤직은 지니리라 서비스 공개를 기념해 유명 작곡가 김형석이 운영 중인 음원 IP(지식재산권) 플랫폼 '뮤펌'과 함께 히트곡 편곡 프로젝트 '아이엠 리본'(I am Re-Born)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아이엠 리본'은 김형석의 히트곡을 지니리라를 통해 재탄생시키고, 하반기에는 지니뮤직을 통해 음원도 발매하는 프로젝트다.

지니뮤직은 이날 지니리라를 활용해 히트곡 '아이 빌리브'(I Believe)를 바흐, 모차르트, 베토반 스타일로 편곡한 음원도 공개했다.

지니뮤직이 이날 '아이 빌리브'를 지니리라에 업로드하자 불과 몇 초 만에 현악 4중주용으로 편곡된 악보가 나타났다. 곧이어 현악 4중주 악단이 등장해 이 악보를 활용해 현장에서 연주도 들려줬다.

/연합뉴스

광주 예술강사들 현장 노하우 공유

서구문화원 '팔색 팔인 톡-신뢰의 네이비' 성료

광주지역 200여개 초중고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예술강사들과 현장경험담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 성료했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최근 공예분야 예술강사인 윤애실(윤스랩 대표)를 초청해 강산아트프렌즈 강산아트홀에서 진행한 '팔색 팔인 톡-신뢰의 네이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윤애실 강사는 '예술강사로서, 예술가로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공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전달했다.

또한 교과 연구와 교구 제작 등 수업연구와 개발은 물론 연구 사례들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애실 강사는 "한 가지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여러 분야와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수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서구문화원은 광주지역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위탁운영기관으로 디자인, 사진, 무용, 연극 등 8개 교육 분야의 전문 예술강사들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 '팔색 팔인 톡'은 오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